

# '고창 무장읍성 사직단' 발굴 성과 공개

전북지역 최초 사직단 발굴조사... "조선시대 지방사직단 실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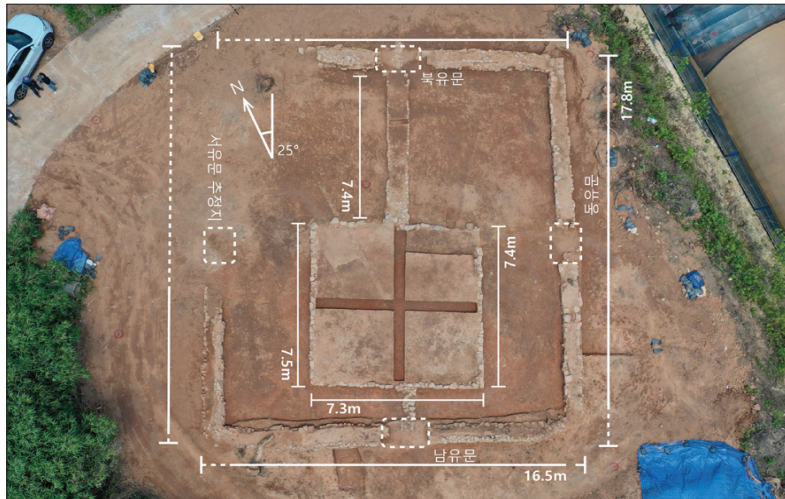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무장읍성 사직단' 발굴과 관련해 2일 현장을 공개했다.

사직단은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곡식을 주관하는 직신(稷神)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지방사직단은 1406년(태종 6)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장읍성은 무송현과 장사현을 통합되면서 새로이 쌓은 성으로 1417년(태종 17)에 축조되었으며, 무장읍성 사직단도 이 시기에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사직단에 대한 발굴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무장읍성의 사직단은 1991년 무장읍성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동시에 지정될 만큼 고창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 이에 고창군에서는 무장읍성 사직단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6월4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발굴조사 결과, 제사를 지냈던 제단과 제단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 유문 등 지방사직단의 전반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사직단은 무장읍성의 북서쪽에 있는 월림마을 뒤편의 낮은 언덕을 깎아 지면을 다진 다음에 담장과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의 규모는 한 변의 길이가 약 7.5m로 깐돌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현재 1~2단의 단 시실이 남아 있다. 제단의 내부는 적갈색 및 회갈색의 흙을 이용하여 다져 단을 만들었다.

제단을 둘러싼 담장은 한 변의 길이가 약 17m 정도인 방형의 형태이다. 담장의 축조는 깐돌과 기와, 흙을 이용하여 혼축하였으며, 3~4단 정도 남아 있다. 담장의 안쪽벽은 넓은



고창 무장읍성 사직단 구조

돌을 칸막이처럼 세워 지지력을 더하고 그 사이에 작은 돌을 채워 쌓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담장 윗부분에는 기와를 덮어 담장을 보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시설은 네 방향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쪽 출입시설은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북쪽 출입시설에서 북쪽 제단의 중앙까지 길이 약 8m, 폭 80cm의 통행로가 확인된다. 깐돌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바닥은 흙으로 채워져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사는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직단 발굴조사로 출토 유물이나 기록으로 볼 때 무장읍성의 축성과 동시에 사직단을 조성했다는 것을 학술조사를 통해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고창은 발굴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정비·복원을 진행하여 무장읍성과 연계한 역사문화자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가람 이병기 전집' 11년 만에 완간

전북대, 10월 개교 77주년 기념... 2014년 시작 발간 사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10월 개교 77주년 기념사업으로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전집인 '가람 이병기 전집' 총 30권을 완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김익두 교수가 공식 발의해 간행위원장을 맡고, 가람문학을 전공한 이경애 박사과 호원대 유화수 교수가 진행해 왔다. 이후 김익두 교수의 퇴임에 따라 전북대에서는 한창훈 교수(사법대학)가 간행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이어왔다.

전북대 주관으로 자체 예산과 전북대, 전주시, 익산시의 보조금으로 올해까지 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출판사업이다.

이 전집은 현재 가람 선생의 문학(시/시조·수필·평론), 일기, 학술논문, 저서 등을 중심으로 총 15권이 간행된다. 앞으로 평론과 서지학, 역사학, 교육학, 주해서, 서간, 사진 자료, 색인 등이 포함되는 15권의 남은 전집 부분이 오는 10월까지 완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전집은 분량 면에서 여타의 전집에 비해 월등하다. 같은 시대 유명 국학자이자 문학가인 육당 최남선 전집이 15권, 춘원 이광수 전집이 20권, 만해 한용운 전집이 6권 정도다. 내용 면에서도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 교육학, 서지학 등 우리나라 국학 인문학 전역에 걸쳐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의 최대 출판사업이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나아가 우리나라 국문학, 국어학, 국학계 전체의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개교 77주년 기념사업으로 완간될 수 있어



가람 이병기 전집 전기 발행 15권 모습

매우 기쁘고,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 큰 도움을 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11년 동안 맡아 수행해온 전 전북대 국문과 김익두 교수는 "돌아보면 때로는 사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든 적이 몇 차례 있을 정도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가람 선생님의 드넓으신 뜻과 유족 및 주위 분들의 끊임없는 격려, 전북대, 전주시, 익산시의 변함없는 의리와 성원에 큰 힘과 희망을 얻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 전집이 하루빨리 완간되어 가람 선생이 남기신 업적들이 세상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회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전국의 국문학, 국어학, 서지학, 역사학 등 여러 전공 분야 학자들과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학생, 대학원생, 강사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간행위원으로는 김익두 교수(총괄, 전북대), 이경애 박사(현대문학, 전북대), 유화수 교수(현대문학, 호원대), 이민희 교수(고전-서지학, 강원대), 황재문 박사(역사-서지학, 서울대), 이태호 교수(국어학, 강원대)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전(傳)'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10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토요일·일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쭉미루 공연장에서 '2024 이수자전(傳)'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2024 이수자전(傳)'은 △발탈(발탈/7월 13일) △꼭두각시의 바람 날다(Wish, Wind, Wing)(남사당놀이/7월 20일) △동행(同行), 마주하다(승무·살풀이춤/8월 10일) △별부(別賦) '이별의 노래'(경기민요/8월 24일) △정가와 흙을 위한 인터랙션 - '축제의 빛'(승무·살풀이춤·가곡/10월 20일)까지 전통적인 멋과 아름다움을 각자의 개성으로 승화시켜 가(歌)·무(舞)·악(樂)·희(戲)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형유산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수자전(傳)>은 각 공연별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참여자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올해 소리축제 개막공연 <잡색>을 함께 만들어 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24 소리축제는 농악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전북예술의 뿌리이자 대표 종합예술인 '농악'을 소재로 한 개막공연 <잡색>을 제작 중이다. 이번 작품은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던 입실필봉 풍물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아 연극적인 방식으로 풀어내 현대극장 무대 위에 올린다.

풍물굿 속에는 '잡색'이 존재하는데 이는 농악 공연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연희자를 일컫는다. 말 그대로 잡다한 색깔, 여러 가지 사람이 섞인 모습을 갖고 있으며, 농악에서는 잡색의 역할이 공연의 생동감과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024 소리축제 개막공연에서는 잡색의 존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 나아가 공연



을 관람하는 관객들로 확장시켜 민중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며, 만 19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공연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워크숍 및 연습, 리허설, 공연 일정에 참석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소리축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구글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7월 30일 개별 연락한다.

/장은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함께하는 예술기행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6월 28일 실시한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일 재단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은 전북특별자치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예술인역량강화 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예술인들의 선진 사례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특히 이번 재교육은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과 리움미술관 '필립파레노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예술기행은 문학 외 4개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24명의 예술인이 함께 했다.

이날 함께 한 예술인은 "재단에서 마련한 '함께하는 예술기행'을 통해 평소 개인 작업실에서 혼자 창작활동만 하다가 서로 분야가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며 "문



화예술로 소통과 힐링이 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예술인은 "전시와 뮤지컬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예술의 시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이번 예술기행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밑거름으로 창작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하반기에도 제2차 함께하는 예술기행을 추진키로 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